지역 메아리

고산면 어르신 1박2일 숲 체험

완주군 고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병수, 김희조)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숲 체험을 실시,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7일 고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르신 31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 국립횡성숲체원으로 숲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원도 나들이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숲 체험 교육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한 것으로 평소 여가활동 기회가 없던 지역 어르신들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이 됐다.

1박2일 동안 어르신들은 국립횡성숲체원 자연 속에서 알록달록 단풍 구경을 하며 휴식을 갖고 편백 향기 주머니 만들기, 한지 손거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진행했다.

숲 체험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은 "혼자 다니기 힘들었는데 낙엽을 밟으며 예쁜 단풍 구경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최병수 고산면장은 "이번 1박2일 숲 체험 교육을 통해 나들이를 자주 할 수 없는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드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청년키움식당 꿈을 키우다

완주군, 11월 청년반상팀 운영…로컬푸드 식재료 이용, 소불고기·육개장 선보여

청년들의 외식창업의 꿈을 키우는 공간인 완주군 청년키움식당에 6차 참가팀이 운영을 시작했다.

7일 완주군에 따르면 11월 한달간 청년키움식당을 책임질 6차 참가팀은 2명의 청년이 꾸려가고 있는 청년반상팀이다.

청년반상팀의 주메뉴는 청년반상, 소불고기반상, 육개장반상으로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로컬푸드 식재료를 이용한 집밥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건강까지 책임질 예정이다.

이들은 외식창업의 실패를 겪어본 청년들로, 영업에 앞서 외식업 전문가들에게 메뉴개발과 식당경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 이번 사업에 뛰어들었다. 또한 이번 청년키움식당 운영이 종료되면 전수받은 노하우를 토대로 창업에 다시 도전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11월 완주군 청년키움식당을 책임질 6차 참가팀인 청년반상팀.

박성일 완주군수는 "당초 목적대로 청년키움식당에서 청년에게 실질적인 자문과 지원을 통해 창업 전에 느끼는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꾸어 외식산업 분야에 성공할 수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청년키움식당에는 총 5차 참가팀(25명)이 수료했으며, 1차 참가팀은 협동조합을 구성해 지난 6일 모교인 우석대학교 내에 우스키친을 오픈했으며, 현재까지 총 5명이 취창업 중으로 안정적인 스타트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니어클럽은 7일 김제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 어르신들을 위한 참여자 문화공연을 진행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문화공연

김제시니어클럽, 어르신들 노고 격려… 600여명 참석

김제시니어클럽은 7일 오전 9시 30분 김제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그 동안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참여자 장기자랑 및 문화공연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박준배 김제시장 및 김제시의회 의원, 김제시니어클럽 운영위원, 전북지회 시니어클럽 관장들과 참여자 어르신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일하는 100세! 활기찬 노후! 시니어클럽이 있어 행복해요' 라는 슬로건 하에 개막행사 및 축하공연(1부)과 어울림한마당(2부)로 나눠 진행되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자리에 참여 하시는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번 문화활동을 계기로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니어클럽 전경희 관장은 2011년 8월에 설립된 김제시니어클럽을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으로서 자리 매김하여, 시장형, 공익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형사업단 중 웃음꽃이 피는마을은 노인일자리의 수혜를 받기 어려운 지역, 오지마을에 노인복지 혜택을 누리게 하고 있는 것이 뜻깊은 일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김제시지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거행

한국자유총연맹 김제시지회(회장 홍종식)는 7일 오전 10시 30분 성산공원 위령비 앞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공산주의에 항거하다 희생된 민간인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거행했다.

이날 합동위령제에는 박준배 시장, 온주현 김제시의회의장을 비롯 보훈단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와 분향, 경과보고, 추념사, 조시낭독, 위족헌사, 살풀이 순으로 엄숙한 분위기에서 유가족과 함께 진행되었다.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는 해방 이후 공산주의의 폭동사건으로 희생된자, 6.25동란 등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학살당한자,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희생된자,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으로 희생된자들중 347명을 파악하여 1982.10.30. 김제성산공원에 반공희생자 합동위령비를 건립 매년 위령제를 거행하고 있다.

홍종식 자유총연맹김제시지부회장은 "자유수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유공자와 가족들이 우리사회로부터 더욱 존경받고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조상땅 찾기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큰 호응

김제시, 상속자의 재산 유무 확인·재산권 행사에 도움

김제시가 추진중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됐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되고 이용수수료는 없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김제시에 따르면 2002년부터 시행된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해 1,171명의 신청을 받아 2,979필지, 3,387천㎡의 토지가 확인되었다.

올 11월 현재 신청인원 759명에 1,882필지, 1,715천㎡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상속자 등에게 상속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상속권자가 읍면동에 사망 신고시 조상땅 찾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상땅 찾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권자가 전국 시,군,구 읍,면에서 신청할 수 있고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시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포함해 금융거래, 자동차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통합해 신청할 수 있어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안흥순 민원소통과장은 "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조상땅 찾기 제도가 활성화되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경찰서, 우석대 유학생 대상 범죄예방교실 운영

완주경찰서(서장 박달순)는 최근 우석대학교에서 중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신규 유학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진행했다.

완주경찰서는 이날 학생들이 유학 생활 중 겪을 수 있는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12 신고 방법,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및 불법체류자통보의무면제제도 등을 안내·홍보했다. 뿐만 아니라 아직 한국어가 서투른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권별로 나누어 동시통역을 통해 교육을 진행했다.

박달순 완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늘어나는 다국적 유학생들을 위해 현지 언어로 작성된 범죄예방교안을 만들어 유학생들이 안전한 대학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시민 의견 청취 '직소민원의 날' 호응

민선7기 공약사업인 '직소민원의 날' 일환으로 박준배 김제시장이 시민·시장 소통만남의 날을 매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을 지정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12명 내외 시민의 불편과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 첫번째 시작으로 11월 6일 열다섯번째 운영 시민과 소통, 웃음으로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며 민원해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7월부터 현재까지 4개월 동안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일상생활의 고충과 애로사항, 행정 인허가 및 정책 등 각계각층 다양한 민원 300여건 접수 250 여건을 박준배 시장님이 직접 여과 없이 듣고 관련 부서 실과장 및 직원이 함께 공감하고 부서간 소통을 유도해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실과소 유사 반복 민원을 예방하는데 효과도 톡톡히 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직소민원의 날 운영 이후 직원들의 민원처리가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도 귀기울이는 공감과 소통의 행정을 직원들에게 주문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행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